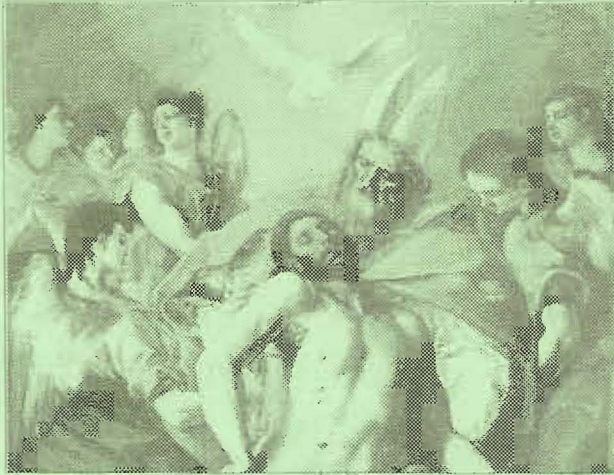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삼위일체 대축일 · 성모성월
제33권 26호(다해) 2013.5.26

[묵사]



삼위일체<엔그레코 16c,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국립박물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구분되어 보이시나
한분이신 하느님을 믿나이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시니
소유한 것을 통해 서로가 하나이시며,

말씀의 원천이신 하느님 아버지
성령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성자로부터 들으시는 말씀만을
저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니
말씀 안에 서로가 하나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 아버지
아들의 삶을 감당하지 못한 저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시어 이끌어 주시니
진리 안에 서로가 하나이신
한 하느님을 믿나이다.

가진 것을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며
진리 안에 머물 때,
온전히 하나이신 하느님처럼
저희도 하느님과 하나가 되나이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이덕철 루카, 이경용 야고보, 김종길 바오로, 송기인 요셉 & 김재순 아가다, 지용애, 김금점 모니카, 전시웅 요한, 고준희 제임스, 정학순 발바라, 임홍규 베드로, 주용범 아브라함, 금석주 모이세, 이숙자 루피나 & 홍숙녀 마리아 & 이용완
	(생)엄유진 토마스 & 김주현 올리아나 가정, 이윤조 클라라, 정진권 요한, 이명자 로사, 이준영 마르코 & 이제니미 크리스티나, 정진웅 필립보 & 박세준 요셉 & 황선홍 그레고리오 & 고 조나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잠언(Proverbs) 8,22-31

화답송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은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미 얼마나 크시옵나 까!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 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 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요한(St. John) 16,12-15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 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05	105	105
봉헌	261	261	310
성체	106	106	305
파견	236	236	311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하느님 말씀과 세상에 대한 투신

▶ 하느님 말씀과 정의를 위한 사회 안의 임무

분명 교회는 개인들과 민족들의 선익에 관계되는 윤리적, 도
덕적 문제들에 관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
고 해서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직접적인 임
무는 아닙니다. 사회적, 정치적인 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특히 복음의 학교에서 배운 평신도들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그들이 교회의 사회 교의의 원칙들
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받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101). 또한, 모든 이가 자연법에 기초하고 인간의 마음에 새겨
져있는 것이기에 “보편적이고 불가침하며 양도할 수 없는” 것
인 모든 사람의 인권을 옹호하고 촉진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
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권리들이 인정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더 실제적으로 존중되고 보편적으로 촉진되기를 희
망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의 강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된 당신 피조물들에게
새겨 주신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말씀의 전파는 그리
한 권리들을 더욱 긍정하고 존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하느님 말씀의 선포, 민족들 간의 화해와 평화

102).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많은 투신의 영역들 가운데에
서 화해와 평화를 촉진하는 것을 열렬히 권고했습니다. 오늘
날의 상황속에서는, 화해와 평화의 원천인 하느님의 말씀을
재발견하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당신과 화해시키시
기 때문입니다.(2코린 5,18-20; 에페 1,10).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에페 2,14)이시고, 분열의 벽
을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많은 발
표는,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하고 폭력적인 갈등과
긴장들을 기억했습니다. 때로 그러한 적대감들은 종교 간 갈
등의 모습을보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종교는 결코 폭력이나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 종교는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
하도록 노력하고 사회적인 공존을 건설하는 윤리적 가치들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
께서 이루신 화해의 업적에 충실하고자, 가톨릭 신자들과 선
의의 모든 사람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화해의 모범을 보이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한 치과 의사가 평생 실천한 하느님의 사랑

지난 5월 6일 서대문구의 한 허름한 치과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34년 동안 전국을 돌며 수많은 한센인을 찾아가 무료로 진료를 한 이 병원의 원장님에게 한센인 대표들이 감사패를 전달하러 온 것입니다. 원장님의 이름은 강대건 라우렌시오입니다. 서울 대신 학교에 다닌 신부님들과 신학생들은 ‘아~ 그 선생님’ 하실 것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강 원장님에게 무료로 치료를 받았고,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에게 용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는 강 원장님께서 한센인들을 위해 봉사하신다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강 원장님은 한사코 자신의 선행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큰 상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묵묵히 그저 자신의 운명처럼, 평생을 한결같이 봉사만 했습니다. 딸들조차 병원이 너무 허름하여 친구들에게 여기가 우리 아빠 병원이라고 단 한 번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 원장님께서 봉사를 시작하신 계기는 아주 우연한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떤 병원에 갔는데 한센인 한명이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돈을 집어 던지며 내쫓았습니다. “여기는 너 같은 문둥이가 오는 곳이 아니다. 병원문 닫게 하려고 작정했나!”

그때 힘없이 돌아서는 한센인의 뒷모습을 본 강 원장님은 한센인을 위한 봉사를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오래전에는 한센인들이 병원 진료를 엄두도 못냈을 뿐 아니라, 시내버스도 못 타고 잠잘 곳도 없어 공동묘지 옆에서 자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강원장님의 열정은 34년 동안 식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쫓긴 한센인

의 모습으로 강 원장님에게 다가오신 건 아닐까요. 강 원장님이 감사패 전달식에서 하신 말씀은 오랫동안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립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대로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봉사에서 얻은 기쁨과 보람이 커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봉사를 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요한 16,13).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등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갈라 5,22-23 참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이라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은 다름 아닌 사랑과 일치요 모범입니다. 사랑과 일치는 모든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사랑은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교리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덕 규범 앞에서는 그 어떤 특권이나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윤리적 요구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평등합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57항 -

이번주 전례봉사회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정광미 프란치스카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진 보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다음주 전례봉사회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송현식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권경아 요세피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삼위일체 대축일

오늘(5월26일)은 '삼위
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은 성

부, 성자, 성령의 삼위께서 같은 본성의 한 하느님이시라는
신비를 기리는 날입니다. 14세기, 교황 요한 22세는 '삼위
일체 대축일'을 교회의 공식 축일로 지정하였고, '성령 강
림 대축일' 다음 주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 ◆ 본당 체육대회 청팀 우승...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탁구대회는 토렌스 남구역이 1등 했습니다.
 - 경품 1등(김치냉장고) 당첨 : 박선화 안나
- ◆ 예비자 교리반 모집
 - 환영식 : 6월9일(주일)
 - 교리기간 : 6월13일~12월19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세례식 : 12월25일 성탄대축일(교리지도 : 오마우라 수녀)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 전진성사 신청접수 중
 - 일시 : 6월23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중
 - 주례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 교육 : 6월 6,7,8,9일(목 금 토 일) '성령안의 생활세미나'
에 의무참석해야함, 6월22일 본당신부님 교육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종교교육분과장 ☎(213)505-2941
- ◆ 백삼위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일정 : 6월 6일(목)~9일(주일)
 - 강사 : 김세을 요셉 신부
 - 영적준비 : 성경읽기(루카복음, 사도행전 19,1-10, 로마서 8
장, 코린토1서 11,12-14),묵주의 9일기도(5월28일~6월5일)
 - 신청마감 : 5월26일 * 참가비 : \$30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성령기도회장 ☎(310)780-0369
- ◆ 목요 그룹 성서 공부반 개설 예정
매주 목요일 전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성서공부반을 개
설할 예정입니다. 수강을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개강날짜 및 자세한 정보는 추후에 알려드립니다.

- ◆ 2013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
 - 수혜대상 : 하이스쿨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 교회봉사자, 학교성적 우수한 학생
 - 신청마감 : 5월 31일 * 신청서 : 사무실
 - 장학금 지급 : 2013년 8월1일 이후
 - 문의 : 본당 신부님

- ◆ 요셉회 5월모임 변경
 - 일시 : 5월26일(주일) 낮미사후 2층 유아실
 - 문의 : 요셉회총무 김병태 요셉 ☎(310)999-1448
- ◆ 남가주 남성 제36차 꾸르실료(영어)
 - 일시 : 6월6일(목)~9일(주일) 포모나 꾸르실료 피정센터
 - 본당 수강자 : 정진웅 필립보, 박세준 요셉,
 - 본당 봉사자 : 황선홍 그레고리오, 고 조나탄
 -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간사 ☎(310)749-0276
- ◆ 백삼위 골프회 6월 토너먼트
 - 일정 : 6월8일(토) 오전 11시, 장소 : 로스 버디스 골프클럽
 - 문의 : 유석영 레오 골프회장 ☎(310)997-5388
- ◆ Virtus Training(청소년 보호 봉사자 필수 교육)
 - 일시 : 6월16일(주일) 오후 3시~5시 강당
 - 대상 : 성직자, 수도자, 청소년관련 사목위원, 주일학교/한
/ 국학교 교사, 자모회 등 청소년관련 모든 봉사자들
 - 강사 : 서정우 프란치스코 교리교사
 - 문의 : 이인석 주일학교장 ☎(213)258-8665
- ◆ 백삼위 탁구동호회 회원 모집
 - 대상 : 본당 교우 남녀노소
 - 연습 및 강습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주일 오후 3시 강당
 - 회비 : 연 \$50 ☎ 동호회장 김용스테파노 (310)926-2248
-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5월26일(주일) :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친교자리 없습니다.
*주일학교 수업없음
 - 6월2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떡 \$4)
* 주일학교(8학년 잡채밥)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박근식 오영섭 이우성 최이원	김대우 박기돈 원건희 이인석	김일선 박선희 윤희동 이태욱	김정웅 성낙호 이미경 정훈모	김현숙 소성덕 이민상 최영신	나경흠 신철규 이상곤 최원석
						합계 : \$2,785
주일미사 헌금 : \$2,354						
성전헌금	강미순 성낙호 이상곤 최원석	김대우 소성덕 이우성 최이원	김현숙 오영섭 이인석	나경흠 원건희 이일길	박기돈 윤희동 정훈모	박선희 이민상 최영신
						합계 : \$1,855
감사헌금 : 이미경						

공지사항

◆ 고등부 전진성사 받은 학생들(11명) 축하합니다.

- 성 마가렛매리 본당에서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주례로 지난 18일 오전 10시 고등부 전진성사를 받은 백삼위 11명 학생 명단 : 김주은 줄리아, 김승미 베로니카, 신희령 엘리시아, 김케빈 스테파노, 성기완 프리스코, 소희섭 토마스아퀴나스, 서정준 바오로, 이어진 미카엘, 안효진 아델라, 김명선 제노베파, 김소연 다이아나

◆ 첫영성체 리허설, 고해성사, 예식

- 리허설 및 고해성사 : 6월1일(토) 오후 3시~5시
- 예식 : 6월2일(주일) 낮 11시 미사중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초등부교무주임 ☎(310)780-8895

◆ 주일학교 은총시장 도네이션 '절실합니다.'

- 은총시장 : 6월16일(주일) * 대상 : 유치원부터 6학년
- 상품이나 물적 도네이션을 받고 있으니 교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인석 주일학교장 ☎(213)258-8665

◆ 2013-2014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내년부터 주일학교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는 관계로 등록을 서둘러 주세요.

- 대상 :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 6월16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8일부터 등록비 인상(\$140, \$120, \$100)
- 자모회비 : \$50(가정당)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정 : 6월28일(금)~30일(주일), 테미클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 참가비 : \$50(5월26일 마감, 6월2일부터 \$70, no refund)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코디 ☎(310)709-3343

남가주 소식

◆ 제26차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일시 : 5월30일(목)~6월2일(주일) 3박4일
- 장소 :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배기현 콘스탄틴 신부(남가주성령봉사회지도)
- 참가비 : \$150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및 봉사회총무 ☎(213)435-7570

◆ FIAT 2013 리더십 트레이닝 피정

- 일시 : 6월20일(목)~23일(주일) 3박4일
- 장소 : 성토마스한인천주교회(애나하임)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18세이상 교회봉사자(Young Adult)
- 신청 : 6월2일(주일) 마감
- 문의 : fiat@fiat.org ☎(714)702-9830

소공동체 5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김찬구 요한 701-634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1반과 같음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5월19일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본당 체육대회로 대체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박래경 헬리카 617-3568 5/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5월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 28, 19 참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기쁨과 사랑을 가득 담아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2013년 7월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는 다시 한 번 이 중요한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삶이 좋은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며 삶의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개 젊은이들은 우리 세상의 어려움에 부딪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스스로 묻습니다. 이러한 어둠을 밝히는 것은 믿음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첫 선교사들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 그분을 바라보라는 부르심에 늘 새롭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께 받은 은총을 헤아려보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건네주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새롭게 읽는 법을 배우십시오. 또한 지난 세대에서 전해 받은 훌륭한 유산을 기억하십시오. 선교사가 되려면 이 유산, 곧 교회의 신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그분께 다른 이들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사랑의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재촉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의 힘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떠나', 곧 자신을 벗어나, 다른 이들에게 '가서' 그들이 하느님을 만나 뵈 수 있도록 이끄십시오. 단순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선교 노력이 더욱 절실한 두 분야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분야는 사회 커뮤니케이션, 특히 인터넷의 세계입니다. 미디어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둘째 분야는 여행과 이주입니다. 여기에서도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섭리적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의 기쁨을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에게 주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더욱 충실하게 알고 사랑하며 복음을 창의적으로 전파하는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화는 우리가 주도하지도 않고

우리의 자질에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복음화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화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힘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성사를 삶의 토대로 삼도록 권유합니다. 참다운 복음화는 기도에서 비롯되고 기도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세계 청년대회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다시 열리게 된 지금, 저는 이 대륙의 젊은이들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지닌 신앙의 열정을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애정을 담아 교황 강복을 보내드립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 이 담화문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작성·서명하셨습니다.)

☞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교회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인 취급하니 불쾌합니다.

성경은 "의로운 인간이란 이 세상에 없다"(코헬 7, 20)며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밝힙니다.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로마 3, 9)라며 죄에 대한 인간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제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인격적으로 존경받을지라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죄에서까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밝히는 죄인은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흉악범이 아니라 '하느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크고 작고 무겁고 가벼운 것으로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분의 의로움과 동떨어진 행실을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죄의 유혹 앞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삶에서 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조차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허약한 인간의 성정을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세상에 복음을 선물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치른 희생의 값으로 세상의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기막힌 은혜의 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무조건 죄가 씻긴 의인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의 허물과 어떤 이의 잘못에 자신을 비추는비뚤어진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를 세밀히 살필 때 주님 마음에 드는 의인이 됩니다.

◆장재봉 신부 / 부산교구 활천성당 주임